



베트남 중부 호이안과 참파 유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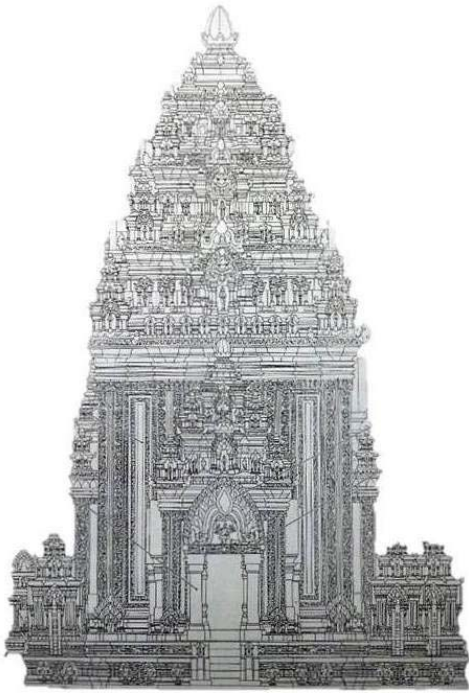
The Hoian and Champa Ruins, in Central Vietnam

고정은*

Jeong Eun KOH

필자는 2010년 8월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호찌민, 다낭, 호이안, 참파 유적군) 및 캄보디아(시엠립, 앙코르 유적군)를 현지조사차 다녀왔다. ‘동남아의 인도화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연구주제에 부합되는 연구대상 지역으로 이 두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함으로써 동남아의 외부 문명, 특히 인도문명의 수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요소를 발굴하고, 향후 내부세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베트남의 참파유적에 나타난 인도미술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독자적인 미술양식의 창출과정 조사’, ‘캄보디아 앙코르왕조의 건축양식 및 힌두·불교조각, 부조조각 조사’, ‘호찌민역사박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kohje@bufs.ac.kr



[1] 참파건축, 미선 A1의 복원도
(大橋智子の 작성도면을 필자가 편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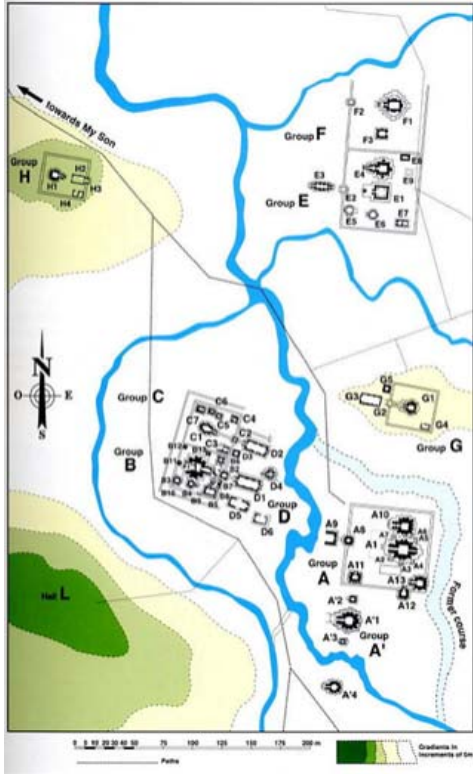
물관, 미술관 및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소장품 조사를 연구주제로 삼아 진행되었다.

참파왕국은 2세기말부터 17세기까지 베트남의 남부와 중부에서 존재했는데, ‘참족’이라 불리던 말레이계의 인종으로 인도에서 전래된 힌두교와 불교를 신봉하였다. 두 종교의 사원건축은 베트남의 해안지역(중부의 후에~남부의 판랑)에 남아 있는데, 주로 7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건축이 남아 있

다. 참파의 건축은 특히 깔란(Kalan, 祠堂, 방형의 탑에 피라미드형 상층지붕을 가진 석조물로서 참파건축의 특징)이라고 불리는데(그림 1), 자바의 잔디(Candi)와 캄보디아의 빠리사뜨(Prasat)처럼 독특한 건축구성을 이룬다. 참파의 유적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선(My Son)유적군, 쩡남(Quang Nam)유적군, 빈딘(Binh Dinh)유적군, 뽀나가르(Po Nagar)유적군, 뽀하이(Po Hai)유적군, 그리고 왕궁멸망기 유적군이다. 이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낭지역의 미선 유적군은 중부의 다낭에서 동서로 약 70킬로미터에 위치하며, 7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립되었던 참파왕국의 힌두교 성지 유적지로 현재 40기가 남아 있다. 현존하는 사원유구에는 편의상 번호[2]를 붙여서 그룹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나짱 지역에 분포하는 참파유적의 일부 유물들은 보존상의 이유로 모두 다낭에 있는 참파조각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파 왕국의 건국신화는 192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의 중부 후에 부근에 있던 왕인 凶連에 의해서 개국되었다. 중국의 한적사료에 의하면, 참파 왕국은 ‘林邑國’, ‘環王國’(당대), ‘占城國’(9세기중반 이후)로

표기되었다. 일본과의 관련기사도 있는데, 736년 참파에서 일본에 온 불교승려 佛哲은 나라의 大安寺에 살면서 일본인에게 범어와 참파왕국의 음악인 ‘林邑樂’을 가르쳤다고 한다. 참파왕국은 4개 지역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합국가로 아마라바티국(다낭, 미선), 비자야국(쿠이논(빈딘)), 카운타라국(낫짱), 판두란가국(판란)을 들 수 있는데, 참파 유적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



참파왕국은 그 긴 역사가 말해주듯이, 초기에는

[2] 미선 유적 분포도

인도문화를 수용하고 인접국인 캄보디아 크메르 문화, 인도네시아 및 발리의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언뜻 보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참파미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문화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외래요소와 자체적으로 창출된 내부요소를 규명하여, 이를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중국 같은 인접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0년 8월,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해외문화유산조사 때에 메모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사진은 모두 필자가 현지에서 촬영한 것이다.

미선 사원군

베트남 중부, 관남(Quang Nam)성 즈이센(Duy Xuyen)현에 위치하며 참파왕국의 성지라고 불린다. 중부도시 다낭의 서남쪽 약70킬로미



[3] 미선 B1 주사당

터에 위치하고, 왕도 짜끼에우에서 남서 14킬로미터에 있다. 미선 유적군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짜끼에우를 경유해서 교역도시 호이안까지 이어지는 투봉 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다. 7세기말부터 13세기말까지 60여기의 건물이 계속해서 조영되어 힌두교 최대의 성지라고 불렸다. 신왕숭배(神王崇拜)의 장으로뿐만 아니라, 화장 후의 왕들의 유골, 유품을 봉납한 분묘(墳墓)도 검했다고 한다. 미선 B, C, D 그룹은 9세기말에서 10세기후반까지 조영된 중심 가람의 이루고 있는데, 이 미선유적을 기술한 최초의 비각문은 4세기말에 나타나며, 바두라바르만 왕이 스스로를 신왕(神王) ‘바두레슈바라’ 라고 칭했기 때문에 링가사원을 건립했다고 한다. 또 6세기말 루두라바르만 왕이 통치하던 때에 큰 화재가 나서 목조 사원군이 대부분 손실된 탓에, 7세기초기, 산부바르만 왕이 내구성이 높은 재료인 벽돌을 이용하여 사원을 재건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 후, 13세기까지 이 지역에는 시주와 건물의 조영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선 E1 주사당(主祠堂)의 제단이다. 982년에 북쪽의 대월(大越)과의 전쟁으로 많은 건물과 석비가 파괴되었고, 그후 왕국의 중심은 남쪽으로 옮겨가 11세기에는 파리바르만 왕(재위 1074-86)이 미선을 재건했다. 이때 B1 주사당, E4 부사당 등 많은 탑당

이 수복되었고, 새롭게 건물을 조영하는 등 규모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초부터 잦은 전쟁이 일어나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점이 저하되자 미션 K, H 그룹의 두 개의 소형 가람만이 언덕 위에 조영되는 데에 그쳤다.

미션 유적군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C그룹과 B그룹은 모두 동쪽을 향한 가람양식으로, 주벽으로 나뉘져 있지만, 두 개의 그룹은 서로 관련되는 건물군이다. 또 D그룹의 비문창고로 사용되기도 하며, D2와 D3 비문창고는 C그룹에, 그 외는 B그룹에 속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B1 주사당[4]과 C1 주사당[5]의 커다란 종교적 차이점은 B1 주사당이 시바 링가형식의 주신(主神)을 모시고 있는 반면에, C1 주사당은 시바상이 주신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이 시바상은 현재 다낭시의 참파조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시바상[6]은 2m에 가까운 거대한 상



[4] 미션 B5 보물수창고



[5] 미션 C1 주사당

으로 머리 부분은 일부 손상되어 있기는 하나, 시바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초승달과 제3의 눈이 조각되어 있었을 것이다. 가슴과 복부 부분에 표현된 근육 등 당당한 신체표현은 크메르 말기 이후에 조성된 다른 상들과 공통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약간 미묘한 웃음을 띤 표정과 두 다리 사이로 내려오는 옷주름 표현은 참파조각에서 나타나는 독



[6] 시바상, 다낭시 참파조각 박물관(미선 C1 주사당 출토) [7] 미선 C1 주사당 벽면 여신상



[8] 미선 D그룹의 현재 수장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당 [9] 미선 D그룹 수장고 내부

특한 것으로 미선 양식에서 동즈옹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C그룹은 주사당(C1), 루문(C2), 보물고(C3), 성수반(聖水盤)을 모신 성수(聖水)고(C4), 부사당(C5, C6, C7), 비문고(D3)로 구성되어 있다. C1 주사당은 10세기에 재건된 것으로, 원래는 파풍(破風)과 상인방 부분이 사암재 장식부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주사당의 장식의장은 전체적으로 간소하고, 보물고 등의 부차적인 건물에 사용되었던 선박형 형식의 옥개가 사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둥을 모방한 곳에는 여신상이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화엽문 등의 장식조각은 보이지 않는다. 또 여신상[7]의 얼굴은 모두 사암재로 후세의 복원으로 보인다. C1 주사당의 평면을 보면, 두 건물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다만, 주방부가 전방부



[10] 미션 A 그룹

를 분리하는 벽의 두께가 크게 달라, 원래 주방부와 전방부를 분리하여 조영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강을 건너 동쪽에 미션 A그룹[10]이 위치한다. 이곳에는 미션 유적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높이 28m) 화려한 주사당이 건립되어 있었다고 하나,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동즈엉 유적

동즈엉은 875년에 인드라바르만 2세에 의해 새로운 도성 인드라푸라가 조영되었던 지역으로, 그 왕궁사원을 중심으로 제작된 조상군의 양식을 동즈엉 양식이라 한다. 이 사원에서 출토된 조각상들은 대부분 다낭시의 참파조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주사당의 본존인 불의상을 비롯하여, 무슨 존상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보살형 입상과 무릎을 꿇고 앉거나 스님 형상의 좌상, 그리고 특이한 자세의 수문신 드바라팔라 입상 등의 석상 외에, 위로 올린 머리카락 앞면에 표식처럼 화불좌상이 표현되어 있고, 이마에는 세 개의 눈의 표현이, 그리고 상반신은 나체형, 하반신은 군(裙)을 휘감은 청동제의 여성형 보살(락슈민드라 로 케슈바라)입상[12]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연결된 눈썹으로 눈을 크게 뜨고, 두터운 입술에 작은 코가 옆으로 벌어진 참파 특유의 얼굴모습



[11] 동즈영 유적



[12] 여성상, 동즈영 유적
출토

을 갖지만, 그곳에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표정도 간취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참파왕국의 구성원인 참족 사람들이 조형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성격이라고도 생각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상들은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원명은 ‘락슈민드라 로케슈바라’(비슈누의 神妃 락슈미=길상천과 인드라=제석천, 및 로케슈바라=세자제보살 혹은 관자제보살의 일체화한 모습으로 추정됨)로 대표되듯이, 원래 석가 혹은 로사나불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중존의 불의상을 비롯하여, 모두 힌두신과 불교신이 합체한 특수한 존명이 추정되며, 예를 들어 청동제 여성형 보살상은 그 사원 이름을 구체화한 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 이 지역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와의 습합적 신앙의 실태가 엿보이기도 하고, 특히, 이시기에 불교가 왕권의 종교로서 채용된 것에 관해서는 당시의 중국과의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챙단 유적

챙단 유적[13]은 평지에 3기의 사당이 나란히 건립되어 있고, 주위에는 제법 규모가 갖춰진 박물관[14]이 있다. 점심 무렵에 이



[13] 쳡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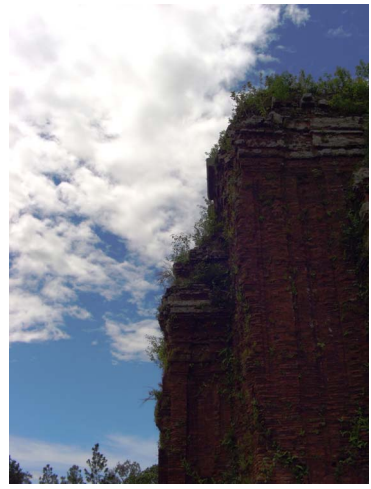
[14] 쉥단 유적 내 박물관



[15] 쉥단 유적 내 박물관 내부

곳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는 못했지만, 외부에서 사진 및 간단한 조사는 가능했다 [15].

3기의 사당 앞면에는 몇몇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박물관 내부의 소장품 등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사원이 이곳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붉은 벽돌로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벽면과 입구장식, 그리고 기단부에 조각된 춤을 추는 듯한



[16] 쉥단 유적(3기 중에서 가장 오른쪽)

익살스러운 표정의 조각상 등 참파왕국 전성기의 우수한 작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쿠옹미 유적

쿠옹미 유적[17]은 쉥단 유적과 마찬가지로 평지에 3기의 사당이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내부에서 보수공사가 한창인 듯 벽돌과 여러 부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쉥단 유적 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사당의 내부에는 들어가 볼 수 없었으나[18], 벽돌로 건축된 사당 입구 주위로 식물문 등 장식문양[19]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17] 쿠옹미 유적



[18] 내부 구조, 쿠옹미 유적



[19] 정면 입구 장식, 쿠옹미 유적

방안 유적

호이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지금까지 보아온 참파건 축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 사당은 팔각형을 취하고 있으며 본 당 앞에 세 개의 입구를 마련한 전방을 설치하였다. 참파 건축 중에서도 이처럼 8각형 평면을 가진 사당은 방안과 참로(현재 토대만 남아 있다고 함)라고 하는 사당 등 두 곳뿐이라고 한다. 내부에는 링거[20]를 모셔두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을 주민이 나타나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가까운 마을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내부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20] 방안 유적 전경



[21] 방안 유적의 사당 내부

있다.

끝으로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소장의 유물은 7세기에서 15세기까지 6기의 시대순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체로 7~8세기 인도화한 미술, 9세기~10세기초의 동즈엉(Dong Duong) 불교미술, 10세기의 고전미술, 1000년~1177년의 비자야 미술, 12세기경의 타프 만 미술, 1177년~15세기의 쇠퇴기 미술로 구분할 수 있다. 참파 유적에서 출토한 많은 유물들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어서 참파 유적과 함께 반드시 들려봐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



[22]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전경



[23]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내부

